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전도의 에너지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8절

Tag:

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4:1-8)

바울의 전도의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일까?

바울은 디모데전후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으며, 그는 이제 곧 순교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그러는 중에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으며,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였으니 스스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참담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에게는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지금은 내가 잡혀서 차가운 감옥에서 죽어가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면류관이란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관이다.

과연 바울은 이러한 전도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에너지의 근원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현재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바울은 원래 열정적인 자였다. 바울의 이런 열정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신약의 사도나 구약의 선지자, 오늘날의 목사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존재라는 자의식이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의 인생 앞에 가로막아 서시기도 하시겠지만, 대부분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권이 있어서가 아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와 자신의 현실을 비교해 본다. 그래서 이 말씀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된다.

바울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이 그랬을 것으로 추측된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자다. 요즘도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유대교에 심취한 유대인들은 그 **명맥**이 유명하다. 그들의 신학 또한 매우 매력적인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일부러 구약성경에 담겨있는 메시아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결국은 **짜 잃은 신발**처럼 절뚝발이 신학이 되어 버렸지만, 그

남겨진 한 켄레라도 하나님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썸이다.

바울이 그런 신학 전통에 몸담고 있어서 그토록 예수님의 사상을 오해하고 폄박하다가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사상이 짝 잃은 신학이었음을 깨닫게 된 썸이다.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한들, 처절한 하나님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힘들다. 바울의 열정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운 썸이다. 이후 바울은 자신의 과거 무분별했고 과격했던 언행을 깊이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바울의 예수님 경험은 기독교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바울은 드디어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초월해서, 고작 **철학이나 학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분별한 행위와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가정과 민족과 나라 가운데 독특한 의미가 주어진다. 자신의 삶이 안개처럼 희미한 상태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삶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경험한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다. 예수 안에서 삶과 죽음은 단순히 시즌의 전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삶과 죽음의 역동성을 체험하였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과 죽음의 종말성이 아니라, 역동성을 발견한 것이다. 마치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이하듯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영원한 나라의 삶이 긴밀하게 엮여 있으며 이런 삶의 전환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죽음은 단순한 시즌 사이의 관문이라는 것, 그 죽음이라는 것 또한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자다가 깨어난다는 점,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하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다시금 부활하기도 한다는 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과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게 된다는 것이 자신

의 미래에 펼쳐진다는 것 등등을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우치게 되었고, 철저하게 믿게 되었다. (물론 이 믿음은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바로 그 믿음이 바울을 그토록 철저하게 전도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였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바울처럼 여러 이방 민족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열정을 불사를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당시 바울에게는 그런 일들이 활짝 열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인 우리는 비록 소수, 어쩌면 한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명과 같이 생각하는 맡겨진 영혼에 대한 열정을 불사를 필요는 있다. 물론 목사인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크고, 맡겨진 영혼들의 영적 성장과 계속적인 복음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사명이 중하겠지만, 그래도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자신에게 맡겨진 한사람의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때 나는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기독교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단순한 사상이나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생사고락을 함께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다.

그 사도들을 이어 사명을 계승한 사람들(속 사도들) 또한 사도들과의 인격적 경험들이 그들의 삶과 믿음과 사명 속에 녹아있다. 교회는 몇천년이 지나는 동안 바로 이런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사명과 복음과 가치관과 삶과 경험들이 한데 어우러져 전승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도란 단순히 복음을 제시하고 믿을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회 공동체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전도란 이처럼 나는 당신과 생사고락

을 함께 하고 싶다는 고백과도 같다.

나는 누구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누가 나의 이 기도와 경건의 삶과 섬김의 삶에 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복을 누릴 것인가? 누가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것인가?

장담하건데 당신의 신앙유산을 함께 공유하게 될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행운아가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당신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당신은 그 사람의 둘도 없는 가장 친밀한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절의 말씀은 그동안 바울이 디모데에게 시행했던 것들이다. 디모데도 바울이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하라는 가르침이다.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생명의 말씀을 전파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씀시다.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경건의 모범을 보입시다.

가르쳐야 한다. 때로는 경책하면서, 때로는 경계하면서 때로는 권면하면서 그와 함께 해야 한다. 복음은 이처럼 엄마가 자녀를 기르듯이 한단계 한단계, 한가지 한가지 전수하는 것이다.

예배만큼 좋은 것은 없으며, 예배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단 한번이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